

체육회 반쪽짜리 통합 잡음

1년 6개월 지났지만 43개 단체회장 공식 일부는 선거결과 두고 진흙탕싸움도... 유성엽 위원장 "분쟁해결 적극 나설 때"

통합체육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 단체의 회장자리가 공식이거나 선출을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육회는 서울, 전남 각각 2개 단체가 미통합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총 11개의 단체가 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다.

문제는 통합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단체가 43개 단체에 이른다는 점이다. 전남체육회의 경우 김홍식 부회장이 대행 중이었고, 서울 관악구와 전남 장흥군의 체육회가 공식이었다.

시·도종목단체의 경우 서울이 11개로 회장 공식 상태인 단체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전국적으로 총 40개의 단체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종목단체의 경우 회장이 이미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소송을 벌이며 법정 분쟁 상태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경기, 대구, 강원, 경남의 6개 종목단체는 회장 선거 무효 또는 회장 직무정지를 이유로 소송 중이다.

대한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통합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도체육

회가 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통합을 이루지 못한 경우 결정단계로 지정될 경우 사업참여와 예산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1년의 유예기간 중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명까지 될 수 있다.

하지만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단체 회장 선출 문제가 민감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사태 파악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 교민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우리나라 체육 역사의 백년대계를 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통합 체육회를 출범시키고, 회장을 선출하는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하지만, 여전히 중앙이 아닌 지역 시군구 체육회 및 종목 단체에서는 통합 및 회장 선출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단체별 통합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찬바람 부는 가을밤... 혁신도시는 후끈

26일 화합교류행사 개최

이은미·장윤정·박현빈 등 인기 가수 대거 출연

깊어가는 가을, 오는 26일 밤 6시 30분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운동장에 가면 도민 누구나 의미있는 행사와 공연 하나를 관람할 수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시즌2 개막을 'JUMP 2gether!'라는 주제로 담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는 한국농수산대학 사물놀이와 타악 퍼포먼스의 식전행사, 개막식, 혁신도시 시즌2 선포식,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남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농제 축제 둘째날 한국농수산대학의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혁신도시 화합교류행사 축하공연에는 이은미, 장윤정, 박현빈, 변진섭, 팔로알토, 소나무, 알아리, 오로라, 서지오, 지원이, 진해성 등 11개팀이 출연해 모처럼 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거주 인구는 2017년 9월말 기준 진안군민수와 비슷하게 2만 6,431명으로,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2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고 임직원 5,299명이 근무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문화 복지시설 확대, 프로그램 제공 등 정주여건 마련에 속도를 더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어느 지역보다 빨리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정착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경찰의 날 기념식 지난 20일 전북경찰청에서 72주년 경찰의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폴란드 현지인 '전주비빔밥'에 빠지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130인분 만들기 퍼포먼스

전주비빔밥축제를 세계 알리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분주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비빔밥만들기' 행사에 우선순위로 전주 음식명인과 김선옥 팀장이 초청되어 전주비빔밥 대형퍼포먼스를 가졌으며 전주비빔밥의 맛과 멋을 알리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전주 비빔밥축제를 알렸다.

특히, 이날 진행된 대형 전주비빔밥 퍼포먼스에서는 크리슈니츠키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스포츠 관계자와 폴란드 의회 및 언론,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때 마친 유럽을 순방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도 참석하여 이날 행사가 더욱 의미가 컸다.

전주비빔밥의 특징인 형형색색의 고명이 담긴 130인분의 대형비빔밥을



지난 18일 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비빔밥만들기' 행사에 우선순위로 전주 음식명인과 김선옥 팀장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다 함께 만들면서 비빔밥처럼 화합할 것을 당부하며 불고기, 잡채, 모듬전 등 전주의 다양한 한식을 체험하는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일 폴란드 현지인과 한국 교민을 위한 비빔밥 체험행사에서는, 많은 현지인들이 참여하여 전주비빔밥에 매료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개

된 전주비빔밥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 전주비빔밥행사에 참여한 우선순위로 전주비빔밥이 이렇게 호응 받게 돼 매우 보람을 갖는다"고 말하며 전주비빔밥이 유네스코음식문화도시 전주의 대표 음식으로서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장애인 정책 잘했다" 극찬

국회,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 등 모범사례 호평

국회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향해 추진해온 장애인 정책을 극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정의당, 비례대표)는 지난 20일 전주장에 인북지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시찰 및 간담회에서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례를 전국 모범사례로 극찬하며, "(김승수)시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관련된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전주시의 사례들이 타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좋겠다"고 호평했다.

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이지콜과 저상버스, 무류셔틀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부터 장애인의 광역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이지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한 뒤 나온 발언이다. 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이지콜)의 인건비와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차량의 대체차 비용, 셔틀버스 운영비 등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이제는 단순히 편의성을 떠나서 가고 싶은 곳은 전국 어디나 편하게 가볼 수 있는 보다 광의의 이동권

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11월 1일부터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콜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전주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콜택시 운영비용의 국비 50% 지원을 요구한 부분도 전주시가 전국적인 하나의 모범이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킨십이 중요하데 그런 측면에서 전주시의 일체형 승강장도 모범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칭찬했다.

윤 의원은 특히, "장애인의 광역이동권 문제는 국토부에서 시외고속저상버스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 말 완료될 예정이나, 실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지자체에서 전주시의 사례로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며 적극적인 모범사례로 확대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